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함

(주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제사장 직분의 중심적이고 궁극적인 요점

성경: 출 28:15-30

- I.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에 따르면, 판결 가슴받이는 제사장 의복의 중심 항목이며, 제사장 직분의 중심적이고 궁극적인 요점이다.
- A. 판결 가슴받이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판결 가슴받이의 실재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행동한다.
 - B. 판결 가슴받이는 교회를 예표하고,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인도와 교회는 하나이다.
 - C.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교회를 통해, 교회에 의해, 교회와 함께 계시하신다.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인데,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도를 알려 주시는 수단인 신성한 알파벳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출 28:21, 비교 시 73:2-3, 16-17, 22-28.
 - D. 판결 가슴받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알려 주는, 하늘에 속하고 신성하며 영적인 타자기의 역할을 했으며, 하늘에 속한 이 타자기가 바로 제사장 의복의 중심이었다.
 - E. 가슴받이는 판결 가슴받이라고 불리었는데, 이것은 이 가슴받이로부터 사람이 그의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이 가슴받이를 착용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고 어떤 돌들은 어두워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타나게 되었다.
 - F. 아론이 가슴받이를 가슴에 달아 여호와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건축된 한 실체인 교회 전체를 그분의 사랑하는 가슴에 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념, 곧 즐거운 기억이 되게 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 출 28:29.
 - 1.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의 고봉으로서,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다 — 엡 1:5, 9, 11, 22-23.
 - 2. 그리스도의 몸의 실행과 표현인 몸의 생활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다 — 롬 12:1-2.
 - 3. 몸의 생활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뜻의 기쁨, 곧 하나님의 마음의 큰 즐거움이다 — 엡 1:5하, 9.
- II. 가슴받이 위에 있는 열두 보석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이 보석들은 함께 건축되어 한 실체가 된 구속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한다 — 출 28:17-21.
- A. 금으로 고정된 열두 보석(출 28:17-20)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한 실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변화된 보석들인 성도들을 상징한다(고전 3:10-12상, 엡 1:22-23).
 - B. 그러므로 가슴받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건축의 축소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구별되는 개인들이지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 계 21:18-20, 롬 12:5, 고전 12:27.

- C. 보석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변화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변화, 곧 천연적인 어떤 것이 신성한 어떤 것으로 변화됨으로써 산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D. 교회의 구성 성분인 믿는 이들은 원래 흙(창 2:7)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인간 본성이 그 영의 일을 통하여(고후 3:3, 3:18) 신성한 본성에 의해 신성한 본성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을 위한 보석이 되어야 한다(마 16:18, 요 1:42, 벰전 2:5, 계 21:18-21).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변화되는 생활이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롬 12:2-3, 고후 4:16).
- E. 4(피조물) 곱하기 3(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숫자 12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행정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이 연합된 것을 상징한다 — 비교 계 21:12-13.
- F. 보석들이 한 줄에 세 개씩 네 줄로 배열된 것은 믿는 이들이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 G. 보석들이 금테에 박혀 있는 것(출 28:20)은 변화되고 연합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 안에서 한 실체로 건축된 것을 상징한다(벰후 1:4).
- H. 숫자 12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며, 우주 안에서 신성한 통치를 수행한다.
- I.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조망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슴에 달려 있고(출 28:29) 그분의 사랑스런 돌봄의 손길 아래 있는(출 28:16하, 비교 요 10:28) 교회는 삼일 하나님과 구속된 인성의 이러한 연합이다.

III. 보석에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은,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 넣어, 그들을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편지들이 되게 하는 것과 일치한다 — 고후 3:3.

- A.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 신약의 사역의 새기는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에 새겨지신다 — 고후 3:2-6.
- B. 열두 보석에 새겨진 글자들은 하늘에 속한 알파벳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 비교 계 22:13상.
- C.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적이 없어서, 우리 안에 아무런 글자도 새겨지지 않은 불투명한 돌들에 불과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IV. 가슴받이 안에 우림과 둠뭉을 넣은 후에 이 가슴받이는 단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판결 가슴받이가 되었다 — 출 28:30.

- A. 우림은 ‘빛들’, ‘발광체들’을 의미한다 — 출 28:30.
 1. 우림은 가슴받이 안에, 곧 열두 보석 아래에 넣은 발광체였다. 우림에는 기름을 담아 불을 붙일 수 있었는데, 기름에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된 불은 제단에서 온 것이었다.
 2. 우림에는 열두 발광체가 있어서 각 발광체가 가슴받이에 있는 투명한 열두 개의 보석에 빛을 비추어 보석들이 빛을 내게 했다(다비드 바론).
 3. 우림은 그 영(기름)과 십자가(제단에서 온 불)를 통해 빛을 내는 빛이시며, 빛을 비추는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요 8:12, 엡 5:14).

- B. 뚝뚝은 ‘온전케 하는 것’, ‘완전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출 28:30.
1. 가슴받이의 열두 보석에 있는 이름들은 히브리어 알파벳 스물두 자 중 열여덟 자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머지 네 자는 뚝뚝에 있었는데, 이것이 뚝뚝을 ‘온전케 하는 것’, ‘완전케 하는 것’이 되게 했다(다비드 바론).
 2. 우림이 각각의 보석을 비추고 보석들이 어두워짐으로써, 스물두 자의 온전한 알파벳을 사용하여 단어와 문장을 조합해 낼 수 있었다.
 3. 뚝뚝은 온전케 하는 분이시자 완전케 하는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히 12:2). 따라서 그리스도는 새기는 것과 완성하는 것 둘 다를 위한 영적인 알파벳이다(비교 계 22:13상).
 4. 종합해 보면, 우림과 뚝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수단이며(히 1:2), 하나님의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증거(계 3:14)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5. 신약에서 우림과 뚝뚝의 실재는 연합된 영이다. 연합된 영은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영 곧 성령께서 우리의 받아들이는 영인,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다 — 롬 8:4, 14, 16, 계 1:10, 4:2, 17:3, 21:10.
- C. 출애굽기 28장 30절, 신명기 33장 8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판결은 우림과 뚝뚝과 관계있는데, 이 판결은 율법의 판정과 판결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킨다.
- D.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있는 ‘판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과 관련하여 규정을 갖고 계신 것을 가리킨다. 판결은 어떤 결정을 가져오게 하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갖게 된다.
- E. 구약에 따르면 가슴받이에 더해진 우림과 뚝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인도를 알려 주시게 위하여 말씀하시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판결 가슴받이를 ‘인도하는 가슴받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레 8:8, 민 27:21, 신 33:8, 수 7:16-21, 삼상 23:6, 9-12, 28:6, 스 2:63, 느 7:65.
- F. 가슴받이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판결을 포함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분의 판결이 포함되는데, 이 판결이 하나님의 인도가 된다.
- G. 영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와 자아와 옛사람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심판해야 한다.
- H. 로마서 8장 14절에서 그 영의 인도는 가슴받이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의 실재로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모든 판결의 결과이자 총체이다.
- I. 하나님의 인도인 그분의 말씀이 가슴받이를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인도를 알려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주님께서 우림과 뚝뚝이 더해진 가슴받이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새겨진 열두 보석이 있는 가슴받이가 만들어져야 했고, 대제사장이 가슴받이를 가슴에 지녀야 했다.
 2. 동일한 원칙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분(우림)이시자 온전케 하시는 분(뚝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교회가 영적인 알파벳이신(고후 3:3) 그리스도로 새겨진 믿는 이들, 곧 변화된 투명한 보석들로 건축되어야 하고, 인도하는 이들이 교회를 가슴에 품어야 한다.

V. 하나님의 인도를 위한 판결 가슴받이는 하늘에 속하고 신성하며 영적인 타자기와 같았고,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뭉이 있는 가슴받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A. 하나님은 빛을 내고 있는 보석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 보석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주님께서 판결 가슴받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들을 통해 비롯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심이 곧 판결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주님의 생각을 계시해 준다.

B.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슴받이의 열두 보석은 우림의 빛 비춤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름이 새겨진 한 보석이 어두워지곤 했다. 이렇게 특정 보석이 어두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하심이었다.

1. 바울의 서신들과 주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신 일곱 서신들은 모두 이 원칙에 따라 기록되었다. 이 서신들은 교회들 안에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것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교회들의 부정적인 상황에 따라 기록되었다.

2.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의 부정적인 상황을 읽어 낸 것에 따라 고린도전서를 썼다. 그러나 그가 쓴 서신이 부정적인 것에 근거할지라도, 이 서신에서 바울은 긍정적인 것들, 곧 그리스도의 풍성을 교회에 공급했다.

3.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그의 서신을 영적으로 타이핑하는 데 사용한 글자가 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한 지방의 교회에서 인도하는 이들은 성도들의 실제 상황과 상태를 읽어 냄으로써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4.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드러내실 길이 없다는 것이다. 어둠이 알려지려면 반드시 먼저 빛 비춤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빛 비춤 가운데서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5.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상황들을 읽어 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곧 하나님의 판결을 알게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지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C. 교회인 우리가 판결 가슴받이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우리는 변화되고 투명하게 되어야 하며, 그런 후에 영적인 알파벳이신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 안으로 새겨져야 한다 — 고후 3:3, 18, 비교 대상 28:19.

2. 보석들에 글자가 새겨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가슴받이를 통해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새겨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 없다 — 히 8:10.

3. 변화되고 투명하게 되고 새겨지고 빛 비춤 받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명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더 많이 우리 안에 새겨지며 빛 비춤을 더 많이 체험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 계 22:1, 21:11, 시 119:130, 사 2:5, 엡 5:8-9, 시 89:15, 요일 1:7.

4. 그리스도께서 새기고 완전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알파벳이시라는 사실은 그분께서 다함이 없는 분이심을 가리킨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새기시는 것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완전하게 되기 위해 그분께 속한 무언가가 여전히 더 필요하다 — 비교 히 6:1, 빌 3:10, 13-14.

- D. 가슴받이는 몸의 생활을 건축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 가슴받이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 것이며, 온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판결에 따라 전진할 것이다.
- E.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모두가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그림에 따른 가슴받이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사역의 말쑥에서 발췌

우림과 둠뭍의 오늘날의 적용

가슴받이(홍패)에 있는 열두 개의 투명한 보석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통해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도록 성도들이 투명해야 함을 가리킨다. 가슴받이 위의 열두 보석이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더 나아가 어느 보석에도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고 아무 빛도 비추고 있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럴 때 보석들은 새겨진 것도 없고 빛 비춤도 없이 불투명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슴받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들의 상황이다. 투명함이나 새겨진 것이나 빛이 전혀 없다. 이것이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의 상황일 수 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중국 본토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들을 방문하였다. 나는 이들 무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투명했고 변화와 투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고 느꼈다. 더 나아가 성도들 안으로 새겨진 그리스도가 거의 없었다.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매우 부족한 것 같았다. 게다가 그들 중에는 전혀 빛이 없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도움이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하여 알려질 수 없었다.

우리가 다른 이러한 메시지들에 따라 오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살펴본다면, 당신은 믿는 이들 대부분에게 투명함 대신 불투명함이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가 새겨진 것이 전혀 없다. 빛 비춤 대신 어둠이 있다.

지방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슴받이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투명해야 하고 우리 안으로 새겨진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알파벳의 글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떤 명백한 체험들을 가져야 함을 뜻한다.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체험은 희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분명하고 명백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이것과 매우 다르다.

우리가 주님께 빛 비춤을 받고 주님의 권익에 관한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으로 인해 마음 아플 것이다. 성도들과 교회들의 상황과 상태를 고려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투명함이 부족하고 새겨진 것이 부족하고 빛이 부족한 데 대해 깊이 염려할 것이다.

교회에 관하여 주님의 인도를 받음

오늘날 우림과 뉘뉘뉘 지닌 가슴받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도하는 이들이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럴 때 그들은 성도들의 상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알게 된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는 마음에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품는 인도하는 무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도하는 이들은 주님의 빛 비춤을 보아야 하고 성도들을 읽어 내야 한다. 그럴 때 그들은 그들의 지방에 있는 교회에 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우림과 뉘뉘뉘 지닌 가슴받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이다. 하나님은 빛을 내고 있는 보석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두워진 보석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상황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뜻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슴받이의 열 두 보석은 우림의 빛 비춤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름이 새겨진 한 보석이 어둡게 된다. 이렇게 특정한 보석이 어둡게 된 것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하심이었다. 우리의 타고난 관념은 가슴받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빛나고 있는 보석을 통해 왔으리라는 것이다. 사실 그분은 갑자기 어두워진 보석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바울의 서신들과 주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신 일곱 서신들은 모두 이 원칙에 따라 기록되었다. 이 서신들은 교회들 안에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것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교회들의 부정적인 상황에 따라 기록되었다. 고린도에 보내는 바울의 첫째 서신을 예로 들어보자. 만일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전혀 없었다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바울은 고린도의 부정적인 상황에 관하여 그가 읽어낸 것에 따라 이 서신을 기록하였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는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가를 알았다. 비록 그의 기록이 부정적인 것에 근거하였지만, 이 서신 안에서 그는 교회에게 긍정적인 것, 곧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였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그들 안에 너무 많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둠을 드러낼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에 있는 어떤 것을 지적하기가 어렵다. 방안의 천정에 여러 줄의 전등이 있다고 가정해 보라. 모든 전등이 빛을 내고 있다면 어두워진 전등을 발견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슴받이를 통하여 말씀하셨는가를 예증한다. 어떤 보석이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하심이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비정상적이다. 빛 대신 어둠이 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말씀하실 방법이 거의 없다. 어둠이 알려지려면 먼저 빛의 비춤이 있어야 한다. 방안에 빛이 전혀 없다면 어둠이 드러날 길이 없다. 그러나 모든 전등들이 빛을 내고 있을 때 어떤 전등이 어두워지면, 그것은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어둠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암시이다. 어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쉽게 발견될 때 그 교회는 정상적이다. 그러나 어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그 교회가 어둠 안에 있다는 표시이다. 어둠이 우세할 때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드러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 빛 비춤 아래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런 종류의 부정적인 상황은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표시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상황들을 읽어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며, 그때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판결과 공급

가슴받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인도는 항상 판결을 수반한다. 이것은 가슴받이를 통한 주님의 말씀하심이 부정적인 상황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뜻한다. 만일 이 말씀하심이 단지 긍정적인 상황을 통해서만 있었다면,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정당하였을 것이므로 판결의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심은 부정적인 상황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말씀하심은 판결이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빛을 내고 있던 사람이었다. 바울의 빛 비춤 아래 어둠이 드러났다. 바울은 어둠에 따라, 곧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정적인 상황에 따라 그의 서신의 어떤 부분을 기록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어떤 어두운 영역들, 곧 하나님의 판결의 글자들이 되었던 영역들을 보았으므로, 판결의 책임 고린도서를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신에 담긴 모든 판결들에는 많은 긍정적인 것들, 곧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공급된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부정적인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그분의 백성을 위한 공급인 그리스도의 풍성을 수반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관한 합당한 체험의 필요성

교회인 우리가 판결 가슴받이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요구 조건들을 성취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변화되고 투명해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알파벳 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 안으로 새겨져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합당한 체험을 갖는 것이다.

최근 한 형제가 간증하기를, 종종 인도하는 사람들은 새 신자나 어린 성도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 그들 자신도 그리스도에 관해 분명하고 명백한 체험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한다고 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에 관해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체험에 있어서 매우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을 거의 갖지 못했을 수 있다. 성도들을 목양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합당한 영적인 어휘가 부족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자 하지만, 그리스도에 관해 어떤 체험이 있는가? 여러 해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해 온 까닭에, 우리는 어느 정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에서 우리는 부족을 느낀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많이 새겨지지 못했다. 아마 우리 안에 한 문자의 일부만이 새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가슴받이를 통한 주님의 인도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변화와 투명함과 새겨진 것과 빛 비춤이 그렇게 부족하므로, 우리는 투명해지고 우리 안으로 새겨진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으며 더 많은 빛 비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의 어느 방면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림과 둠뭇을 지닌 가슴받이라는 놀라운 그림이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체험이 필요함을 인식함

가슴받이와 우림과 둠뭇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알파벳을 본다. 한 종류의 알파벳은 새기기 위한 것이고, 다른 종류의 알파벳은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김이다.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새겨져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완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새김을 위한 알파벳이신 그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완전함을 위한 알파벳이신 그분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는 이들,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는 이들도 그들에게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다. 우리 안으로 새겨진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여전히 부족함을 깨닫는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완전함이 되시는 그분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안으로 새겨진 그리스도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주님의 공훈이다. 이것에 관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체험이다.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 안으로 새겨지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나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출애굽기 28장의 그림에 따른 가슴받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129장, 1460-1466쪽)*